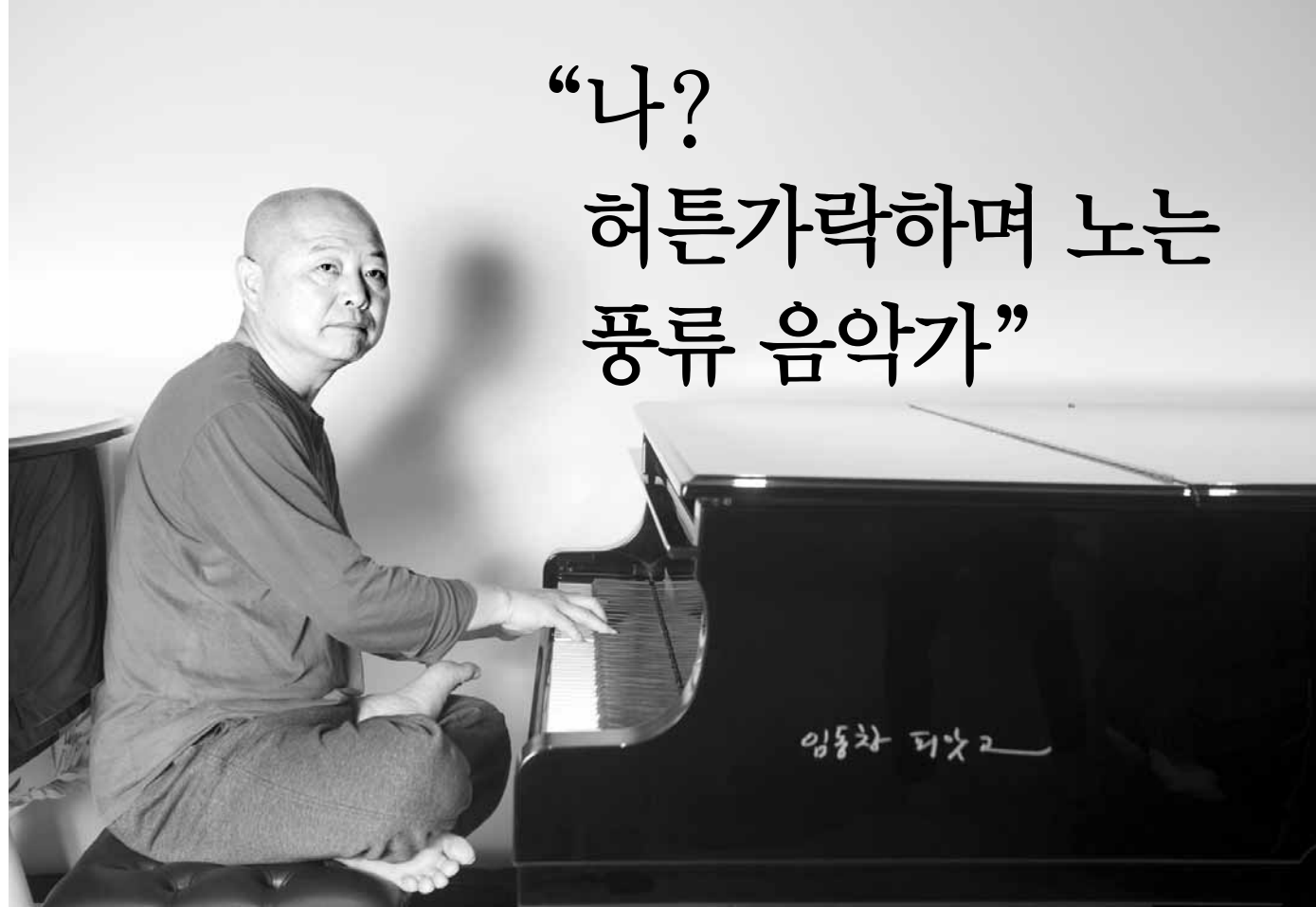


컬처 & 피플

피아니스트 임동창



“나? 허튼가락하며 노는 풍류 음악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을까. 오묘한 내 음악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풍류음악가 임동창(58)이 수십년간 고민하고 공부해 왔던 삶의 화두다. 나이 오십이 넘어서야 스스로에게 낸 숙제를 끝마치고 얻은 답은 ‘풍류(風流)’였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다 풍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그렇게 풍류예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공무진하지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물질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자유로운 음악”을 찾아 쉬없이 피아노를 연주하던 임동창을 두고 사람들은 ‘풍류 피아니스트’, ‘허튼가락 창시자’, ‘신명의 소리를 만드는 천재작곡가’라고 부른다. 하지만 정작 그는 스스로를 ‘노는 사람’이라 칭한다. 자유로운 삶으로서의 열쇠인 풍류를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음악으로 놓고 싶어했다.

그는 음악이야말로 풍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의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삶을 살다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보니 건강하기 어렵고 행복함을 느끼기 어렵고 아름다울 수 없고, 당연히 신이 안나죠. 음악으로 그럴 풀어내는 겁니다.” 그는 음악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다며 안타까워 했다.

중학생 시절 음악실에서 틀게 된 피아노 선율이 ‘벼락처럼’ 몸에 들었다던 그는 그날 이후 피아노에만 빠져 지냈다.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았지만 어머니를 졸라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기어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피아노에만 몰두했다.

중학생 때 피아노 소리가 벼락처럼 몸에 들어와 그 날 이후 피아노만 쳤죠. 그런데 피아노 소리는 너무 응큼해 ‘피앗고’ 만들어 쳐보니 섹시해, 살아 꿈틀대는 것 같아

가르치는 스승마다 그의 재능에 감탄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넘어 자신만의 음악세계에 이르게 됐다.

그는 평생의 화두로 삼아 깨달은 자신의 음악을 ‘허튼가락’이라 이름지었다. 장르도 구분짓지 않는다. 누구든지 내면의 음악을 꺼낼 수 있게 하는 자유의 음악, 그저 허튼가락인 것이다.

“허튼가락은 새로운 장르예요. 어느 쪽에 가깝거나 하는 것도 없어요. 완전 자유놀이 같은 거죠. 수준도, 기술도 필요없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음악 놀이를 통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가 만든 ‘허튼가락’은 우리 조상이 남겨준 본 음악에서 나온 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음악 요소만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전혀 새로운 음악이 됐다. 같은 곡이라도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 또 같은 연주자라도 연주할 때 마다 달라지는게 그의 음악이었다.

관객을 제1로 생각한다는 그는 전국으로 공연을 다닌다. 그의 제자들로 이뤄진

‘흥아라 밴드’와 함께다. 그의 문화에서 삶과 사랑을 배우며 신명나게 연주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흥아라 밴드’는 크고 작은 ‘임동창의 풍류’ 공연마다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피아니스트 임동창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더 있다. ‘피앗고’다. 기존 피아노가 내는 ‘응큼한’ 소리가 싫다면 그가 새롭게 만들어 낸 임동창만의 피아노다.

“피아노는 소리를 내는 현이 쇠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현을 두드리는 해머는 양털이예요. 나무로 만든 뼈대에 부드러운 양털로 감싼 거죠. 솜 방망이로 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본능적으로.”

몇차례의 실패 끝에 결국 나무가 직접 현을 두드리는 ‘피앗고’를 탄생시켰다. ‘피앗고’는 첼발로 소리와 비슷하다. 우리 악기로 보자면 양금 소리다. 일반적인 피아노는 한 음을 낼 때 쇠줄 세 개가 동시에 울리면서 하나의 소리로 통합돼 들리지만 ‘피앗고’는 세 개의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 그의 표현대로 ‘건강하고 섹시한 소리, 살아 꿈틀대는 소리’다.

임동창은 여전히 음악을 공부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전통 음악을 찾아나서겠다. 종족들의 전통음악을 통해 음악의 너머에 공통으로 통하는 무엇가를 찾고 싶다고 했다.

“전통음악을 들으면 진솔해요.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소리죠. 그들의 음악을 듣고 공통 분모를 찾아보고 싶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일것 같아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예술단체인 ‘아리랑 밴드’를 만들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음악도 들려줄 겁니다.”

/원주=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우리가곡부르기’ 송년 자선음악회

12월 금호아트홀서

테너 유하나 등 출연

매월 두번째주 금요일 함께 모여 노래하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가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는 송년 자선음악회를 마련했다.

오는 12월 오후 7시30분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기존의 호신대 티브라운에서 금호아트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로 옮겨 진행된다.

초청성악가로 뉴욕 트라이 시티즈 오페라단 소속 가수로 활동중인 테너 유하나씨가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 등을 들려주며 전대시대 부중 합창 동아리(지휘 하은주), 로터스 중창단도 무대를 빛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대구·대전 등 타 지역 가곡 부르기 회원들도 출연한다. 광주에서는 박현·박진영·나인희·김건이·고재



테너 유하나

경·이용우·김희숙·장흥식 회원이 무대에 선다. 이들이 들려주는 가곡은 ‘산촌’, ‘그대 그리움’, ‘사랑가’, ‘잊지 못한 까닭’ 등이다. 또 관객들과 ‘고향의 노래’, ‘얼굴’, ‘사랑하는 마음’ 등을 함께 부른다. 그밖에 시인 서애숙씨가 백석의 시 ‘나와 나라사와 원당나귀’를 낭송한다.

회원들이 모은 성금은 지역 아동보육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전남가곡부르기(cafe.daum.net/gjksong)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빈·베를린 필 신년음악회 영화관서 본다

메가박스 광주점

메가박스 광주점이 빈 필하모니와 베를린 필하모니 신년 음악회 실황을 중계한다. 세계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두 단체의 신년음악회 중계 실황은 매년 많은 클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빈 필하모니의 신년음악회는 내년 1월1일 오후 7시부터 생중계된다. 지구촌의 가장 유명한 새해맞이 행사로, 올해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주빈 메타가 지휘봉을 잡는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경쾌한 왈츠곡으로 구성되며, 슈트라우스 일가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담은 5곡

이 신년음악회에서는 처음으로 연주된다.

독일 현지에서 오는 31일 열리는 베를린 필하모니 신년음악회는 1월 3일 오후 8시부터 중계된다. 사 이먼 래틀의 지휘로 코다이의 ‘하리 야노스 모음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등을 연주하며 91세 피아니스트 메나헴 프레스슬러가 협연한다.

티켓 가격 일반 3만원, 청소년 1만5000원. 10일부터 메가박스 인터넷 홈페이지(www.megabox.co.kr)와 모바일 앱 등에서 예매 가능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 모집

20일 오후 2시 오디션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장 윤영문)이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광주 시내 거주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디션은 오는 20일 오후 2시 광주문예회관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에서 열린다. 오디션은 자유곡 1곡(악보 지원)과 시창으로 이뤄진다.

단원에게는 단복과 간식, 식사가 제공되며 공연 수당을 지급하고 캠프 비용, 전국 순회 연주 및 해외 공연도 지원한다.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응시 원서 다운로드 받은 후 메일(hiseyoung@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13-82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수경칼럼니스트
22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음악은 삶의 지혜를
가득 담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풍류의 지혜

